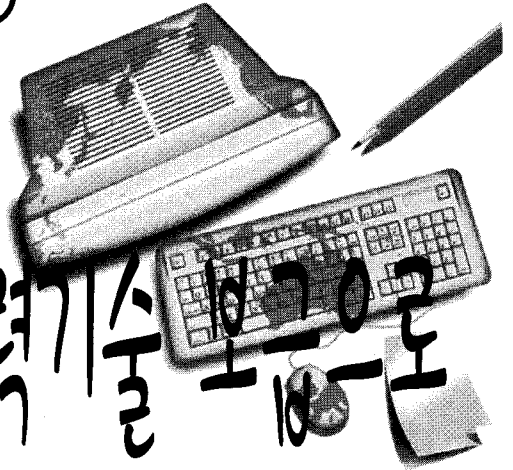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양질다수성 품종 · 생력기술 보급으로 쌀 안정생산 기반 다질러

기상재해 종합대책 수립 · 친환경농업 실천 · 영농기술교육 강화에 진력
'5대 병해충' 신속 · 적기방제 위해 기상환경 고려한 추정시스템 적용



장 서 문
경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우리도에서는 국민들의 주 먹거리인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계획면적 10만4천ha에서 3백30만석을 생산하기로 하고 최우선 시책으로 양질다수성 품종을 지난해 76%에서 80%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하였다. 또 대산벼, 동안벼 등 쓰러짐에 강한 품종의 확대보급과 기상재해 대비 신속한 기술대책 수립,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로 피해 최소화, 작물양분종합관리 등을 통한 시비법 개선, 농생태계 보전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 등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00년 중점추진과제

우리 도원의 새천년 목표는 우리농업이 무한경쟁시대를 주도해 나갈수 있도록 수출 전략작목 개발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수출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연구와 지도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의 중점추진

과제로 △수출전략 작목 개발 및 확대로 수출농업 육성 △기상재해 종합대책으로 쌀 안정생산 △저투입 에너지 절감형 환경보전농업 실현 △농업경영 개선 및 첨단기술 정보 확산 △미래지향적 첨단시설용 농업기술 중점 개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 기술보급 △학습조직체의 활성화로 미래농업의 주역 양성 △전문 영농기술 교육강화로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설정, 도내 50만 농업인에 대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95년 우리도원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한 부직포이용 못자리 설치 기술은 지난해 77%에서 올해는 91%로 확대 보급되었다.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

이제는 쌀도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고객 만족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도의 61개 장려 품종 중 10a당 500kg이상 수량이 나고 밥맛도 좋은 품종을 선정, 지역별로 적응시험을 거침으로써 양질 다수성 34품종을 추천 공시하였다. 새해영농설계교육시에는 우량품종 특성표(2만매)를 제작, 배부하여 양질다수성 품종의 확대보급에 따른 품종특성교육을 6만 7천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미질이 좋고 수량이 많은 신품종을 전시함으로써 인근 농업인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신육성 우량품종 시범포 등을 35개소에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우량품종을 관찰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전 시군과 읍면에는 우량종자 자율교환 창구를 설치하여 농가에서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함으로써 올해 총 소요량의 30%인 1천5백37톤의 우량종자를 보급시키는 등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난해 보다 5% 증가한 식부면적의 81%(8만5천2백ha)까지

양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하였다.

못자리 부직포이용, 생산비 절감

95년 우리 도원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한 부직포 이용 못자리 설치 기술은 지난해 도내 못자리의 77%에 보급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91%(5백42ha)로 확대 보급되어 못자리 10a당 관리 노력은 7.5시간에서 5.4시간으로 28%나 줄었다. 생산비는 3만9천원에서 2만7천원으로 31%가 줄었으며 도내에서 총 67억 원에 이르는 생산비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벼 직파재배는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지도한 결과 올해 봄철 기상이 좋아 2천ha에 이르고 있다. 이중 담수직파가 52%, 건답직파가 48%로써 직파의 가장 큰 문제인 제초제 체계기술이 농업인에게 정착되고 있어 비교적 잡초 방제가 잘 이루어 지고 있다.

적정 벼 포기수 확보

우리도는 시설채소, 보리 등의 재배와 담배 등 특수작물 재배로 2모작 비율이 식부면적의 35%를 차지함으로써 단위면적당 쌀수량이 다른도에 비하여 떨어져 적정 벼 포기수 확보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벼 포기수 확보를 위한 농업인의 인식개선을



식물종합병원 현장진단. 180여명의 농업인에게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었다.

위한 교육을 중점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평당 포기수는 95년 72.7포기에서 98년 75.4포기로 서서히 증가하여 농가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금년에는 평당 80포기를 목표로 3만7천대의 이앙기 식부장치를 사전에 조정하였고 모부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묘상자 10% 더 확보하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취약지 및 2모작 중심으로 모내기 현장기술 지도에 전 지도인력을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다.

쓰러짐 방지기술 보급 강화

우리도는 98년과 99년 2년 연속으로 많은 면적의 벼가 쓰러져 수량이 감소하고 미질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나타나 전 농업인과 공무원, 군인, 학생 등이 총 동원되어 추석도 잊은 채 벼 일으켜 세우기에 매달린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금년 기술보급 사업의 우선 과제를 벼 쓰러짐 방지에 두고 토양개량제 사용, 품종선택, 질소비료 줄이기 등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한 리후렛 3만매를 제작, 배부하였

다. 이와함께 새해영농설계와 여름철 컴퓨터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는 등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였고 대신벼, 동안벼 등 쓰러짐에 강한 내도복성 품종을 식부면적의 42%에 확대 보급하였다. 또한 도복방지 시범포를 20개 시군에서 읍면당 1개소씩 2백개소를 설치하여 쓰러짐 방지 종합기술을 투입, 인근 농업

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올해의 들녘에서는 과비에 의한 벼일을 절단하는 모습이 사라져 벼 쓰러짐의 피해가 나타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기상재해 대비 신속한 기술대책

우리도는 타 시도와 달리 해안선이 길고 낙동강과 남강의 범람으로 홍수피해가 많으며 경지면적의 분포가 해안지에서 산간지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어 매년 기상재해의 피해가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도와 시군간의 연락체계망을 구축,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우려지역을 수시 순회하면서 예방차원의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작목별 전문가를 편성(3개조 21명)하여 기상특보 발령시 비상근무조를 가동함과 동시에 시기별로 기술체계를 정립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피해를 줄이는데 전직원들이 전력투구 하고 있다.

정밀예찰로 적기방제에 만전

우리도에서는 벼 병해충 정밀 예찰을 위하여 20개소의 벼 병해충 예찰소와 126개소의 관찰포를 통한 신속한 분석으로 발생전망을 예측하고 있으며 5대 병해충(벼물바구미, 흰등멸구 포함)에 대하여는 초기 발생부터 기상환경을 고려한 추정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방제적기를 신속하게 판단,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회의를 연 18회 개최하여 발생정보를 인터넷(www.knrda.go.kr)과 TV, 신문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문의 글남기기”란에 게재된 병해충에 대하여는 자세한 내용으로 한 점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여 답변에 임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14개 시군에 설치하여 이동차량 진단장비와 과학장비를 활용, 정밀진단으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점은 기술원과 연계하여 해결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농가에서 병해충으로 인한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기술 확대

도내 농경지의 비옥도 및 중금속정밀 분석을 위하여 2만4천점을 채취, 분석중에 있으며 농업환경자원 변동 모니터링을 위하여 토양과 농업용수 7백50개지점을 선정, 활용하고 있다. 또한 양분종합관리와 병해충종합관리

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산청, 함양 등 산간지역의 소득원을 개발 보급하고 21개소 39ha의 병해충종합관리 시범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사업을 선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한 홍보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도의 친환경 농산물이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명성 계속 유지

우리도는 지난 '95년부터 금년까지 1백3개소의 수출농단을 조성하였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신선농산물의 전국 수출 점유율을 보면 가지 60%, 오이 50%, 밤호박 45%, 딸기 42%, 파프리카 30%, 토마토 28% 등이며 올해 6월말까지 수출실적을 보면 2천3백만불로 목표(4천1백만불)대비 55%이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는 93%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레일식 자동방제, 지중난방, 에어쿨 등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신기술 시범사업을 1백56개소에 전개하였으며 시설원에 병해충중 방제가 까다로운 병해충의 대농업인 연시교육에 중점을 두고 식물종합병원을 운영하여 1백80여명의 농업인에게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해 주었다.

아울러 우리도는 시설채소 재배역사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 연작재배에 의한 생리장해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이의 개선대책에 중점을 두어 도내 수출농단을 순회, 농업인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대일 농산물 수출 목표 초과 달성과 함께 전국 최고의 수출도(道) 명성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농약정보**